

고객사

M83 Studio (<https://m83.co.kr>)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0길 34(역삼동 626-1)

소프트웨어

Autodesk® Shotgrid

Autodesk® Maya

Autodesk® MotionBuilder

M83, 클라우드 기반으로 VFX 작업 효율과 품질에 더 높아진 기준을 제시하다

작업 효율성, 품질 개선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 도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로 국내 VFX 시장 발전에 기여

“국내 SF 영화 제작 기술은 할리우드 등 해외 시장에 비해 아직 성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토데스크 ShotGrid 및 Maya 등의 디지털 기술과 함께라면 더욱 생생하고 역동적인 장면으로 관객을 압도하고, 나아가 해외 시장과 견줄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M83은 기술을 활용해 보다 완성도 높은 제작물을 만들어내고, 국내 SF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정성진 이사, M83 Studio



오토데스크 Maya와 ShotGrid를 활용해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승리호의 기동대와 로봇 모습

VFX 최고 전문가들이 설립한 디지털 시각 효과 스튜디오 'M83 Studio'

M83 Studio(이하 M83)는 오랜 기간 한국 VFX (Visual Effects, 시각효과) 업계에서 활약해온 정성진 이사를 비롯한 CG 베테랑들이 설립한 VFX 전문 스튜디오다. 정성진 이사는 국내 최정상급 VFX 기술력과 규모를 갖춘 텍스터스튜디오(Dexter Studios)의 공동 설립자로, <미스터고>, <해적>, <신과함께>, <기생충>, <승리호> 등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작품들의 VFX 작업을 담당해왔다.

정성진 이사는 2018년 텍스터스튜디오를 떠나 짧은 기간 프리랜서로 VFX 작업을 진행해오다, 2020년 M83을 설립했다. M83은 정 이사를 필두로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VFX 베테랑들이 모인 곳으로, 수준 높은 퀄리티의 시각 효과 제작을 최우선으로 삼고 영화, 드라마,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의 VFX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M83은 탁월한 감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립 후 짧은 시간에 드라마 <빈센조>와 같은 블록버스터 작품의 VFX 작업을 맡게 됐으며 빠르게 국내 VFX 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국내 최초의 우주 SF 영화 <승리호> 제작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도입

SF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에 있어 실제와 같은 특수 효과 수요가 증가하며 최근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는 VFX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산의 비중으로 설명하자면, 과거에는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필요한 총 제작비 중 VFX 작업에 할당되는 예산이 20% 정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그 비중이 평균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가했다. 시각 효과와 특수효과에 투자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나면서 더욱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씬들이 탄생하고 있다.

정성진 이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승리호>의 VFX 작업을 총괄했다. <승리호>는 영화 <극대소년>을 연출한 조성희 감독이 만든 한국 최초의 우주 SF 영화로, 우주선과 로봇 등이 등장하는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정 이사는 총 8개 외주업체, 약 1,000여 명의 전문가들과 손발을 맞추며 VFX 작업을 이끌었다. 그는 “많은 업체와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모두가 긴밀하게 협업하는 게 중요했다” 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이 같은 작업 환경에서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오토데스크의 ShotGrid(샷그리드, 구 Shotgun) 솔루션을 꼽았다. 오토데스크 ShotGrid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제작물의 제작 관리를 돕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으로, 체계적인 작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ShotGrid의 다양한 툴을 활용해 작업자는 자신의 업무와 팀원들의 작업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작업물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제작자는 전반적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는 등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종료 시점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정 이사는 “ShotGrid를 활용해 작업 내용 검토나 피드백 전달, 최종 결과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원격으로 진행해 프로젝트 작업물과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라며, “ShotGrid는 전 세계 대다수 메이저 VFX 스튜디오들이 사용하는 업계 표준



오토데스크 Maya와 ShotGrid를 활용해 만든 드라마 빈센조 일부 장면

솔루션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제공해 준다"라고 설명했다.

<승리호>는 정성진 이사의 첫 SF 도전작이기도 했다. 때문에 정 이사는 처음 프로젝트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 내심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 정 이사를 비롯한 다수 팀원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우주 배경을 구현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데스크 ShotGrid를 비롯한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인 Maya(마야), 모션 캡처를 위한 MotionBuilder(모션빌더) 등의 솔루션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승리호>에서 스토리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기동대와 '업둥이'라는 이름으로 존재감을 독특히 나타낸 로봇 역시 100% 디지털로 제작됐다. 정 이사는 Maya와 MotionBuilder를 사용해 모델링부터 캐릭터의 움직임 구현하는 리깅(Rigging),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디지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ShotGrid와 Maya로 해외 로케이션 촬영 없이 더 현실 같은 장면 구현

해외 로케이션 촬영 없이도 극사실적인 장면을 연출해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은 <빈센조> 역시 정성진 이사가 참여한 작품이다. <빈센조>는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에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가 베테랑 변호사와 함께 힘을 합쳐 조직에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 중에는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다수 등장하는데, 제작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촬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오토데스크의 ShotGrid와 3D 모델링, 렌더링 시각 효과 지원 소프트웨어인 Maya(마야)를 사용해 서울의 스튜디오에서 이탈리아 현지 장면들을 제작했다.

정 이사는 "일정이나 예산의 제약으로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해외 촬영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빈센조의 포도밭 장면이 유독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기에 VFX

제작자의 입장에서 의아하기도 하고 놀라웠다. 이탈리아 포도밭이나 궁전 등 실사와 가까운 배경 장면 연출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시청자들의 평이 기억에 남는다. 이토록 긍정적인 시청자 반응을 이끌어낸 데에는 ShotGrid와 Maya 등 오토데스크 솔루션의 뛰어난 성과와 작업 환경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영화와 시리즈물을 넘어 메타버스까지, M83의 끊임없는 도전

M83이라는 사명에 대해, 정성진 이사는 "M83 Studio는 우주에 있는 여러 은하 중 남쪽 바람개비 은하로도 잘 알려진 M83 은하의 이름에서 착안한 것"이라며, "M83 은하는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매우 드라마틱 하면서도 신비한 모양을 갖고 있다. 나 역시 앞으로 더 드라마틱 하고 역동적인 장면을 선보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회사의 이름을 M83으로 짓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M83이 가진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국내 VFX 업계를 선도하는 1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미 다수의 블록버스터 영화와 드라마에서 VFX 작업을 주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M83은 앞으로도 전쟁 장면 등 대규모 그래픽 작업이 필요한 블록버스터급 대작을 통해 시장 내 입지를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다.

M83은 향후 VFX 기술 연구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는 "최근 VFX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작업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라며, "M83은 최고 수준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퀄리티에 집중하고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자 한다.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기보다는 오토데스크 ShotGrid, Maya 등 기존에 사용하던 솔루션과 접목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플러그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M83은 향후 메타버스 등 뉴미디어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정 이사는 "새로운 영역으로 분야를 넓히더라도 작업 퀄리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오랜 기간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온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분야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낼 것이다"라고 전했다